

서지기술에 있어 판사항에 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Edition Statement in Bibliographic Description

김 정 현(Jeong-Hyen Kim)**

목 차

1. 서론	3. 2 일본목록규칙의 판사항
2. 판사항에 대한 이론적 고찰	3. 3 영미목록규칙의 판사항
2. 1 판의 개념분석	3. 4 국제표준서지기술법의 판사항
2. 2 판사항의 표시형태	3. 5 목록규칙들간에 판사항의 비교 분석
3. 목록규칙들간에 판사항의 비교 분석	4. 결 론
3. 1 한국목록규칙의 판사항	

초 록

이 연구는 한국목록규칙 제4판을 중심으로 일본목록규칙 영미목록규칙 국제표준서지기술법의 판사항에 대한 규정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규칙들간에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판사항에 대한 특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서지기술에 있어 판과쇄의 개념을 구별하면서 판의 개념을 매우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즉, 대체로 내용의 변화가 있거나, 내용의 변화는 없더라도 크기나 활자를 달리하면 새로운 판으로 표시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새로이 발행하더라도쇄로 표시한다. (2) 판사항의 기술요소는 크게 판표시, 특정 판의 책임표시, 부차적 판표시, 그리고 부차적 판의 책임표시와 같이 4개 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등 판표시는 대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3) 전자자료의 경우 전자자료의 내용과 기능에 대한 특정 버전을 나타내는 표시는 판으로 표시하는 반면, 전자자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환경은 판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4) 판에 대한 대등책임표시, 부차적 대등판표시 및 책임표시는 임의규정으로 하거나 판사항에 표시하지 않는다.

ABSTRACT

This study mak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ataloging rules on the edition area included in the KCR4, NCR(2001), AACR2R, ISBD(M), and ISBD(ER). There is a delicate difference between the cataloging rules. The main features on the edition are as the follows. (1) In the bibliography description the concept of the edition is a general application. That is to say, the edition construct the new edition and the impression. The former comes the purview of a change content, the size, and a printing type. The latter publish newly. (2) The requisite for description of the edition area consists of a edition statement, statements of responsibility relating to the edition, additional edition statement, and statements of responsibility following an additional edition statement. Voluntary rules transcribe the parallel edition statement. (3) In the case of the electronic materials special versions on content and function indicates as the edition, but the environment of software does not indicate as it. (4) Parallel statement of responsibility relating to the edition, parallel additional edition statements, and parallel statements of responsibility following an additional edition statement are voluntary rules or not transcribed in the edition area.

키워드: 판사항, 서지기술, 한국목록규칙, 영미목록규칙, 일본목록규칙, 국제표준서지기술

Edition statement, Bibliographic description, KCR4, AACR2R, NCR, ISBD(M), ISBD(ER)

* 이 논문은 2003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hgim@chonnam.ac.kr)

논문접수일자 2004년 11월 18일

게재확정일자 2004년 12월 16일

1. 서론

1.1 연구목적 및 방법

목록이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물리적 정보를 일정한 체계에 따라 조직한 것으로 이용자와 자료를 매개하는 하나의 검색도구센치미터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목록이 이러한 검색도구으로써 기능을 하는데는 자료를 식별할 수 있는 서지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오늘날과 같이 개정작업이나 다양한 판으로 발행되기 쉬운 출판환경을 고려할 때 판사항도 서지적 식별요소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커터(C. A. Cutter)는 일찍이 그의 사전체 목록규칙 서문에서 목록의 기능을 ① 이용자가 알고 있는 저자명, 서명, 주제명으로 자료를 검색하게 하고, ②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특정도서를 저자명, 주제명, 문헌의 유형으로 보여주며, ③ 특정 판(서지적) 또는 저작의 특성(문자나 주제별)에 따라 자료의 선정을 지원한다고 주장하였다(Cutter 1904, 12). 여기서 그는 ③의 '서지적인 판사항'의 기술을 언급함으로써 목록에 있어 판사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국목록규칙 제4판(KCR4)에서는 목록의 기능을 첫째, 특정 저자의 저작과 특정 표제(서명)의 저작 또는 특정 주제의 저작을 탐색하고, 둘째로 특정 저자의 모든 저작과 특정 저작의 모든 상이한 판을 목록 상에서 집중한다는 두 가지로 제시하면서(KCR4 0.3), 특히 판사항의 목적은 표제와 책임표시사항만으로는 식별되지 않는 자료를 판표시를 통해 개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KCR4

1.2.0).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저작의 상이한 판을 목록 상에 집중한 후, 이것을 식별하여 검색하기 위해서는 역시 판사항이 중요한 서지 기술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전세계 도서관의 표준서지기술법으로 자리잡고 있는 ISBD(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에서는 서지기술사항을 크게 표제 및 책임표시사항, 판사항, 자료특성사항, 발행 및 배포사항 형태기술사항, 총서사항, 주기사항, 표준번호 및 입수 조건사항 등 8개 영역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 가운데 두 번째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판사항(edition statement)은 동일 저작의 내용을 구별해 줄 수 있는 서지적 식별요소센치미터 주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그런데 서지기술에 있어 이러한 판사항은 규칙들간에 적용범위나 방법이 상이하며, 같은 규칙이라 하더라도 개정판에 따라 미묘한 차이점이 있어 실제로 목록작업을 해보면 애매한 경우가 많다. 또한 일반 단행본이나 전자자료 등과 같이 매체에 따라서도 기술범위나 방법이 상이한 경우가 많으며, 오늘날 전자환경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 전자자료의 경우, 기존 목록규칙에서 적용하던 조항으로는 더 이상 효율적인 서지작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각 규칙들마다 관련 조항들을 검토하여 개정작업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우리도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1. 2 선행연구

먼저 판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최근의 목록규칙 개정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초의 국제표준서지기술법인 ISBD(M)이 1974년 제정된 이래 1978년, 1988년에 이어 2002년에 다시 개정되었으며, 전판에 비해 판사항에 있어서는 특별한 변경 내용이 없다. 그런데 1990년에 컴퓨터파일 자료의 서지기술을 위해 제정된 ISBD(CF)가 1997년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 전자자료의 서지기술에 대처하기 위해 ISBD(ER)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이 개정되면서, 판사항의 기술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다.

ISBD(M)의 내용을 전면 수용하여 1978년에 개정된 AACR2는 1988년과 1998년에 이어 2002년에 다시 개정되었다. AACR2R 2002 개정판에서는 ISBD(ER)의 내용이 반영되어 판사항의 기술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또한 AACR2R 2002 개정판의 내용이 그대로 MARC 21에 수용되고 있으므로 전자자료에 있어 판사항의 기술은 결국 ISBD(ER)의 내용이 기본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KCR4는 전판에 비해 일반적인 판사항에 있어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다만 제4판에서 처음으로 신설된 제8장 전자자료의 기술내용은 기본적으로 ISBD(ER)의 내용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日本目録規則(NCR)은 1987년판이 발간된 이후, 1994년에 1987년판 개정판과 2001년에 1987년판 개정판과 같이 두 차례에 걸

친 개정작업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판사항은 1987년판 개정판에서 전자자료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편 판사항에 대한 각 학자들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명규(1988)는 판사항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과 함께 영미목록규칙과 한국목록규칙의 판사항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였다. 그런데 이는 주로 단행본의 판사항에 한정하여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최근의 인터넷 전자환경에서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자자료와 관련된 판사항은 당시의 목록규칙에서는 거의 언급되어있지 않았으므로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의 志保(1983)는 현대목록법에 있어 판사항의 범위와 개념을 단행본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境田(1995)은 일반적으로 版과 刷의 개념을 가장 혼란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일본의 백과사전이나 사전 등을 대상으로 그 사용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飯島(1998)는 목록규칙에 있어 판사항을 중심으로 AACR2R 1988년판과 NCR 1987년 개정판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지만 최근의 전자자료와 관련된 판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판사항에 대해 여러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지만 모두 앞서 언급한 최근의 목록규칙에 대한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전자자료의 판사항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각 목록규칙을 면밀하게 분석하면 규칙들간에 판사항의 적용범위가 각각 다르게 언급되어 있으며, 실제로 목록을 할 경우 규칙의 적용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차이점과 최근의 전자자료

를 중심으로 한 판사항의 기술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판사항에 대한 이론적 고찰

2.1 판의 개념분석

문헌정보학관련 용어사전이나 목록규칙들에 나타나고 있는 판의 개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커티는 일찍이 그의 사전체목록규칙에서 목록이란 “특정 판 또는 저작의 특성에 따라 자료의 선정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판’의 개념을 “동일한 형식으로 동시에 발행된 도서의 部數(a number of copies)”라고 정의하였다(Cutter 1904, 19).

해로드(L. M. Harrod)는 판차에 대해서 “① 동일한 활자 또는 동일한 판으로 인쇄되거나, 한꺼번에 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발행되는 저작의 모든 부수이다. 판은 썬의 숫자로 구성된다. ② 텍스트가 약간 변화했거나 또는 활자가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다시 조판되거나 형태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한꺼번에 인쇄된 부수”라고 정의하였다(Prytherch 1995, 221).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서는 “판이란 인쇄용어로서 인쇄하기 위해 원형이 되는 것을 총칭하는 말이다. 현대적인 인쇄술에서 활자를 써서 활판을 만들거나 그렇게 만들어진 판을 원판이라고 하며, 원판에 상당한 수정을 가한 경우 개정판, 증보판과 같은 말을 사용한다. 또한 판이란 동일저작물을 다른 출판사에서 간행하

기도 하고, 조판방법, 판형, 장정 등을 바꾸어서 출판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단위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판, 축쇄판, 보급판, 복제판, 호화판이라는 말도 사용한다”고 정의하여 판의 개념을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1996, 399-400).

ISBD(M)에서는 “동일한 조판으로 인쇄한 출판물의 모든 부수 또는 마스터 본에 의해 생산된 출판물의 모든 복제물로서 한 출판사 또는 일단의 출판사가 간행한 것(하나의 판은 약간의 변이가 있는 수 개의 썬 또는 발행분을 포함하는 수도 있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IFLA 2002a, 3).

AACR2R에서는 매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판(edition)이란 “직접 접촉하거나 사진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본질적으로는 같은 유형의 이미지로 제작되어, 동일한 기관에 의해 발행되는 모든 부수(copies)”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전자자료에 있어 판이란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표현하여, 동일한 기관에서 발행되는 모든 부수”라고 정의함으로써 물리적인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시하는 전자자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썬(impression)란 “한번에 인쇄되어 있는 판의 모든 부수”이며, 수정쇄(Issue)란 “미세하지만 명백한 상이점으로 동일 판 이외의 부수와 구별할 수 있는 별개의 한 균을 형성하고 있는 판의 부수(예를 들면, 원래의 인쇄형태를 유지하면서 미세한 교정을 가한 도서의 새로운 썬)”라고 정의하고 있다(ALA 2002, Appendix).

KCR4에서는 판(edition)이란 “동일 조판으로 인쇄한 출판물의 모든 부수 또는 한 마스

터 본에 의해 생산된 출판물의 모든 복제물로서 한 출판사 또는 일단의 출판사가 간행한 것”이며, 쇄(impression)는 “한번 또는 한번의 작업으로 밀어낸(인쇄한) 한판의 모든 판본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韓國圖書館協會 2003, 467, 473).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서지기술에 있어 판과 쇄의 개념을 구별하면서 판의 개념을 매우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즉, 대체로 내용의 변화가 있거나, 내용의 변화는 없더라도 크기나 활자를 달리하면 새로운 판으로 표시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새로이 발행하더라도 쇄로 표시한다.

2. 2 판사항의 표시형태

앞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의 표시는 크게 내용의 변화에 의한 판표시와 내용의 변화는 없더라도 서지적 의미에서의 장정에 의한 특수한 판표시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판표시의 구체적인 형태가 실제 출판물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유형별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2. 2. 1 내용의 변화에 의한 판표시

내용의 변화에 의한 판표시는 이전의 판에서 본문의 내용이 잘못된 점을 개정, 수정, 첨가, 삭제 등에 의해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내용의 변화에 의한 판표시의 유형을 일반 목록규칙이나 각종 서지데이터베이스에서 실제 사례를 분석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내용의 개정 또는 수정

제2판; 제3판; 개정3판; 改訂版(개정판); 改訂增補版(개정증보판); 新訂版; second edition; 2nd ed.; 3rd ed.; 2. Aufl.; 4th revised ed; rewritten; revised; revised and enlarged ed. 등.

2) 내용의 첨가 또는 삭제

增補版(증보판); 簡略版(간략판); 要約版(요약판); 削除판版(삭제판); 改作版(개작판); 插畫版(삽화본); enlarged ed.; abridged ed.; epitome ed.; expurgated ed.; adaption ed.; illustrated ed. 등.

2. 2. 2 서지적 의미에서의 특수한 판표시

개정이나 증보와 같이 내용의 변화는 아니지만 서지적 의미에서 특수한 판의 경우, 목록규칙이나 실제 사례 등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분석하면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이용대상의 수준, 구매대상, 언어, 지역, 수록용기, 글자배열, 제본형태, 활자크기 등에 따라 판사항을 구분하여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점에 의한 판사항은 실제로 판을 달리하여 자료가 출판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자자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매체에서 판사항으로 표시하고 있다.

1) 구매대상의 차이

圖書館版(도서관판); 大衆版(대중판); 廉價版(염가판); 普及版(보급판); library edition; popular edition; cheap edition; trade edition 등.

2) 이용대상자나 수준의 차이
초등학생판: 成人版(성인판): 一般版(일반판): school edition; student edition 등.

3) 언어의 차이
한글판: 영어판: 불어판: 독일어판: Korean version; English version; French version 등.

4) 지역의 차이
한국판: 미국판: 프랑스판: 서울판: 뉴욕판: 런던판: 해외판: Seoul edition; New York edition; overseas edition 등.

5) 수록용기의 차이
마이크로 필름판: CD-ROM판: DVD판: microfilm ed.; CD-ROM ed.; DVD ed. 등.

6) 글자배열의 차이
가로 쓰기판: 세로 쓰기판: 2단 배열판: 3단 배열판 등.

7) 제본형태의 차이
페이퍼 바운드판: 하드 바운드판: 케이스 바운드판: 포켓판: 호화판: hard bound ed.; paper bound ed.; cloth bound ed.; pocket ed.; deluxe ed.; airmail ed. 등.

8) 활자의 물리적 차이
대활자판: 소활자판: 대형판: 소형판: 극소판: large paper edition; small paper edition; miniature edition 등.

9) 영인이나 복사에 따라
複製版(복제판): 影印版(영인판): 縮刷版(축쇄판): reproduction edition; reprint edition; reduced size edition 등.

10) 기타 특정 판으로 발간
Word Cup edition; managers' edition; special education edition 등.

한편 전자자료의 경우에는 내용배열, 출력형식, 출력매체, 파일의 물리적 특성, 시스템의 형식 등에 따라서도 판이 다르게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전자자료의 경우, 내용은 동일하지만 배열이나 수록용기 등이 쉽게 바뀔 수 있어 그동안 판표시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의 목록규칙에서는 대부분 판표시로 취급을 하지 않고 있다. 즉, 그동안 일반도서와 같이 전통적인 자료는 내용의 변화가 없더라도 외형적인 서지적 변화도 판표시의 중요한 요소로 기술한 반면, 전자자료는 서지적인 변화가 있더라도 내용의 변화가 없으면 대부분 새로운 판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결국 전자자료에 있어서는 전자자료의 내용과 기능에 대한 특정 버전을 나타내는 표시는 판으로 표시하는 반면, 전자자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환경은 판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한국목록규칙이나 AACR2R, ISBD(ER) 등에 따르면 아래에 제시한 차이점으로 인한 전자자료의 판사항은 판으로 표시하지 않고 있다.

1) 내용배열의 차이
• 가로 쓰기판: 세로 쓰기판: horizontal writing ed.; vertical writing ed. 등.

- 2단 배열판: 3단 배열판: double columns ed. three columns ed. 등

2) 출력형식의 차이

- ASCII edition: Postscript edition 등
- PDF 파일판: HTML 파일판: 한글워드 파일판: MS워드파일판 등.
- JPG 파일: GIF 파일: BMP 파일: TIFF 파일: PNG 파일: EMF 파일 등.

3) 시스템형식의 차이

- IBM PC version: Macintosh version 등.
- Network version: Stand alone version 등
- Window version: Dos version 등.

4) 출력매체의 유형이나 크기 차이

- Disk edition: CD-ROM version: Internet version 등.
- 14 cm disk edition: 9 cm disk edition 등.

5) 파일의 물리적 특성(레코드밀도) 차이

- 압축파일 버전: 일반파일(비압축파일) 버전 등.

3. 목록규칙들간에 판사항의 비교분석

3.1 한국목록규칙의 판사항

3.1.1 판사항의 규칙구조

KCR4의 기술관련 목차를 살펴보면 제1장 기술총칙, 제2장 단행본, 제3장 지도자료 ... , 제12장 점자자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가운데 제1장 기술총칙의 판사항에 대한 구조는 아래와 같다.

제2장부터 제12장까지 장별로 규정되어 있는 판사항의 목차는 모두 이러한 기술총칙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매체의 특성에 따라 일부 세부조항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즉, 기술총칙과 매체별 판표시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단행본(2.2), 지도자료(3.2), 화상자료와 영상자료(7.2), 입체자료(9.2), 점자자료(12.2) 등은 기술총칙(1.2)과 판표시의 차이점이 전혀 없다. 반면에 고서와 고문서(4.2)는 기술방법을 완전히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악보(5.2), 녹음자료(6.2), 전자자료(8.2), 마이크로자료(10.2), 연속간행물(11.2) 등은 판표시의 범위와 기술방법을 기술총칙과 부분적으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제1장 기술총칙	1.2.1 (범위)
1.2 판사항	1.2.2 (기술방법)
1.2.0 총칙	1.2.3 부차적 판표시
1.2.0.1 (기술요목)	1.2.3.0 (목적)
1.2.1 판표시	1.2.3.1 (범위)
1.2.1.0 (목적)	1.2.3.2 (기술방법)
1.2.1.1 (범위)	1.2.4 부차적 판의 책임표시
1.2.1.2 (기술방법)	1.2.4.0 (목적)
1.2.2 특정판의 책임표시	1.2.4.1 (범위)
1.2.2.0 (목적)	1.2.4.2 (기술방법)

3. 1. 2 판사항의 규칙내용

1) 판사항의 기술요소

판사항의 기술요소를 판표시, 특정 판의 책임표시, 부차적 판표시, 부차적 판의 책임표시와 같이 4개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며(KCR4 1.2.0.1), 이는 단행본뿐만 아니라 모든 매체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2) 판표시

(1) 판표시의 범위

대부분의 매체에서 판표시의 범위를 기술총칙 그대로 적용하고 있지만, 전자자료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다.

먼저 기술총칙에는 판표시의 범위를 일반적으로 서수와 판, 또는 다른 판과의 차이를 표현한 ‘개정(改訂)’이나 ‘신(新)’ 등과 같은 어구와 ‘판(版)’이라는 용어로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부규정을 두고 있다(KCR4 1.2.1.1).

- ① 인쇄원판은 동일하지만 특정 판으로 표시된 것은 판표시의 범위에 포함한다.
- ② 판자가 붙은 어구이되, 다른 판과의 내용적 형태적 변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주제를 같이하는 다른 자료에 비해 그 저작의 특성을 설명하는 어구일 경우에는, 그 쓰임새를 참작하여 표제관련정보 또는 표제의 일부로 처리한다.
- ③ 쇄차는 판표시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그런데 전자자료의 경우, 전자자료의 판(edition, issue, version, release, level, update)이나 전자자료를 읽거나 실행하는데 필요한 응용프로그램 또는 운영체제의 특정 버전에 관한 사항을 그 범위로 하며, 다음의 경우는 판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KCR4

8.2.1.1).

- ① 사소한 변경(철자수정)
- ② 내용배열의 변경
- ③ 출력형식이나 출력매체의 변경
- ④ 물리적 특성의 변경(레코드의 블록이나 밀도의 변경)

(2) 판표시의 기술방법

기술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표시의 기술방법은 아래와 같다(KCR4 1.2.1.2).

- ① 판(版, edition 또는 이의 상등어)자가 기재되지 않은 판표시는 그에 대한 적절한 문자를 각괄호 속에 보기한다.
- ② 복제본의 으뜸정보원에 영인판 또는 복제판임을 알 수 있는 어구가 있을 경우, 이를 판표시로 기술한다.
- ③ 增補 新增 影印 등 판을 지칭하는 어구가 표제에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 역할자가 판을 나타낼 때에도 판표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 ④ 판표시가 정보원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이전 판이나 다른 판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판을 나타내는 적절한 어구를 각괄호로 묶어 판표시를 한다.
- ⑤ 쇄차는 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않지만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되, 판표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어서 기재한다. 동서에서 표시되어 있는 판자가 실제로는 쇄의 뜻을 지니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판표시로 기재한 다음 ‘쇄’이라는 어구를 앞세워 각괄호 속에 보기한다
- ⑥ 종합표제가 없는 합집의 개별표제에 대한 판표시가 각기 다를 경우, 주기사항에 기술한다.

⑦ 특수한 포맷이나 형태를 표현하는 판표시, 특정 언어나 지역에 의한 판표시, 그리고 인쇄원판은 동일하지만 특정 판으로 기재된 판표시는 모두 판표시로 기술한다

전자자료의 경우, 대부분 기술총칙을 그대로 적용하며, 다만 호환성을 지닌 상위버전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버전다음에 '이상'이라는 어구를 부기한다(KCR4 8.2.1.2).

3) 대등판표시

언어나 문자를 달리해서 두 종 이상의 판표시가 있을 경우(대등판표시), 본문의 언어나 문자와 일치되는 것을 채택하여 기재하고 나머지의 표시는 생략한다.

4) 특정 판의 책임표시

기술대상자료가 속한 특정 판과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기술대상자료의 특정 판에 관련된 저작자 등을 그 범위로 한다.

그리고 판에 대한 책임표시는 특정 판의 판표시 다음에 기술하며, 기술방법은 표제다음의 책임표시기술방법과 동일하다. 그리고 특정 판에 관련된 책임표시가 복수의 언어나 문자로 쓰여 있을 경우에는 본문의 언어나 문자와 일치하는 것을 채택하여 기재하고 나머지 책임표시는 그의 기재를 생략한다.

5) 부차적 판표시

계층구조를 지닌 판표시(예: 특정 판의 부차적 판)에서 상위판의 한 판이거나 별도의 명칭을 지닌 부차적 판을 개별화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판의 판표시를 유지하면서 또 다

른 명칭의 부차적인 종류의 판표시를 범위로 한다.

그리고 부차적 판표시는 음땀정보원에 표시된 형식 그대로 기술하며, 기술방법은 판표시 기술방법(1.2.1.2)에 따른다.

6) 부차적 판의 책임표시

기술대상자료가 속한 특정 판의 부차적인 판과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부차적 판과 관련된 저작자 등을 그 범위로 한다.

이는 표제다음의 책임표시기술방법(1.1.6.2)에 준하여 부차적 판표시 다음에 기술한다.

3.2 일본목록규칙의 판사항

3.2.1 판사항의 규칙구조

NCR(2001)의 기술관련 목차를 살펴보면 제1장 기술총칙, 제2장 도서 제1장 서사자료..., 제13장 축차간행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가운데 제1장 기술총칙의 판사항에 대한 구조는 KCR4와 큰 차이가 없다. 즉, 제1장 기술총칙, 1.2 판사항, 1.2.0 통칙, 1.2.1 판표시, 1.2.2 특정 판의 책임표시, 1.2.3 부가적 판표시, 1.2.4 부가적 판의 책임표시로 이루어져 있다.

제2장부터 제13장까지 장별로 규정되어 있는 판사항의 목차는 모두 이러한 기술총칙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매체의 특성에 따라 일부 세부조항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즉, 기술총칙과 매체별 판표시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도서(2.2), 지도자료(4.2), 영상자료(7.2), 정지화자료(8.2), 박물관자료(10.2), 전자자료(11.2) 등은 기술총칙(1.2)과 판표시의

차이점이 전혀 없다. 반면에 서사자료(3.2), 악보(5.2), 녹음자료(6.2), 전자자료(9.2), 마이크로자료(12.2), 축차간행물(12.2) 등은 판표시의 범위와 기술방법을 기술총칙과 부분적으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3. 2. 2 판사항의 규칙내용

1) 판사항의 기술요소

판사항의 기술요소를 판표시, 특정 판의 책임표시, 부가적 판표시, 부가적 판의 책임표시와 같이 4개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며(NCR 1. 2.0.1), 이는 도서뿐만 아니라 모든 매체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2) 판표시

(1) 판표시의 범위

대부분의 매체에서 판표시의 범위를 기술총칙 그대로 적용하고 있지만, 전자자료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다.

먼저 기술총칙에는 판표시의 범위를 일반적으로 서수와 판, 또는 다른 판과의 차이를 표현한 '개정(改訂)'이나 '신(新)' 등과 같은 어구와 '판(版)'이라는 용어로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부규정을 두고 있다(NCR 1.2.1.1).

① 인쇄원판은 동일하지만 특정 판으로 표시된 것

② 판자가 붙은 어구이되, 다른 판과의 내용적 형태적 변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주제를 같이하는 다른 자료에 비해 그 저작의 특성을 설명하는 어구

③ 쇄차는 판표시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전자자료의 경우, 판표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NCR 9.2.1.1).

① 전자자료의 내용추가 또는 삭제를 나타내는 특정 명칭

② 프로그래밍언어의 차이를 나타내는 특정 명칭

③ 업그레이드를 나타내는 특정 명칭

④ 프로그래밍언어나 운영체제의 수정 등을 나타내는 특정 명칭

⑤ 전자자료의 이용에 필요한 응용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를 나타내는 특정 명칭

단, 외부장식, 용기, 인쇄나 시스템 형식 등의 차이는 판표시로 하지 않는다(NCR 9.2.1.1A)

한편 판표시의 범위를 이와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도록 다음과 같은 別法 규정이 있다.

전자자료의 이용에 필요한 응용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를 나타내는 특정 명칭은 판표시를 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이것은 주기한다(NCR 9.2.1.1 別法). 외부장식의 차이를 나타내는 특정 명칭은 판표시를 하지 않는다(NCR 9.2.1.1A 別法 1). 용기 및 인쇄나 시스템 형식 등의 차이를 나타내는 특정 명칭은 판표시를 한다(NCR 9.2.1.1A 別法 2).

이와 같이 전자자료의 판표시에 있어 일반 총칙과 다른 것은 물론이거니와 別法 규정으로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도록 한 것을 보면, 그 만큼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으며,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판표시의 기술방법

기술총칙에서는 판표시를 정보원에 표시된 그대로 기술하며, 목록자가 보기한 사항은괄호속에 표시한다. 그리고 숫자는 아라비아숫

자로 나타내며, 로마 등의 약어는 부록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약어화 한다(NCR 1.2.1.2).

별법으로 초판과 종합표제가 없는 자료의 개별저자에 대한 판차, 다른 서지적 사항과 결합하여 이미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는 판표시는 기술하지 않는다(NCR 1.2.1.2 別法).

3) 대등판표시

대등판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다.

4) 특정 판의 책임표시

기술대상자료의 책임표시가운데 해당 자료가 속한 특정 판의 개정에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를 그 범위로 하며, 판표시 다음에 기술한다(NCR 1.2.2).

5) 부차적 판표시

복합적인 계층구조를 지니고 있는 판표시에 대응하기 위해 이것을 보다 특정화하기 위해 부차적인 판표시를 하며, 정보원에 있는 그대로 기술하다. 이와같이 부가적 판표시를 함으로써 특정판을 한정하는 각종 복잡한 상황에 대응할 수가 있다(NCR 1.2.3).

6) 부차적 판의 책임표시

부차적 판에 관련이 있는 저자 등을 기술한다(NCR 1.2.4).

3. 3 영미목록규칙의 판사항

3. 3. 1 판사항의 규칙구조

AACR2R(2002)의 기술관련 목차를 살펴보면 제1장 기술총칙, 제2장 단행본, 제3장 지

도자료 ... 제12장 계속간행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가운데 제1장 기술총칙의 판영역에 대한 구조는 KCR4와 큰 차이가 없다. 즉, 제1장 기술총칙, 1.2 판영역, 1.2A 통칙, 1.2B 판표시, 1.2C 특정 판의 책임표시, 1.2D 부차적 판표시, 1.2E 부차적 판의 책임표시로 이루어져 있다.

제2장부터 제12장까지 장별로 규정되어 있는 판사항의 목차는 모두 이러한 기술총칙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매체의 특성에 따라 일부 세부조항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3. 3. 2 판사항의 규칙내용

1) 판사항의 기술요소

AACR2R에서는 판사항의 기술요소를 판표시, 특정 판의 책임표시, 부차적 판표시, 부차적 판의 책임표시와 같이 4개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등 판표시는 판표시에서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다(AACR2R 2.1).

2) 판표시

(1) 판표시의 범위

기술총칙에는 단지 판사항을 기술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판표시의 범위에 대해서는 각 매체별로 언급하고 있으며, 전자자료에서 다른 매체들과 많은 차이점이 있다.

• 단행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료에서는 저작의 어떤 판이 해당 저작의 다른 판과 상이점이 있거나, 해당 저작의 특별한 이름으로 증쇄(named reissue)한 경우를 판표시로 기술한다(AACR2R 2.2B1).

• 전자자료의 경우 AACR2R에서는 데이터

의 오기수정, 내용의 재배열, 출력매체나 출력 형식, 블로킹요소나 레코드밀도 등의 물리적 특성 등과 같은 경미한 변경으로 인한 자료의 새로운 발행은 새로운 판으로 다루지 않으며, 주기사항에 기술한다(AACR2R 9.2B4).

(2) 판표시의 기술방법

판표시의 세부적인 기술방법은 아래와 같다(AACR2R 1.2B).

① 판표시는 기술대상자료에 있는 그대로 기술하며, 약어와 숫자는 부록을 참조하여 표준적으로 사용한다.

② 판표시가 주로 숫자나 알파벳이 아닌 기호로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각괄호속에 본표제와 같은 언어의 문자로 표시한다.

③ 판표시에 판을 나타내는 단어 없이 문자나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적절한 어구나 약어를 보기한다.

④ 표시가 판표시라는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판이나 버전 등의 용어가 있다면, 그것을 판표시로 간주하여 그대로 기술한다.

⑤ 기술대상자료에 판표시가 없지만 이전 판에 비해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각괄호속에 적절한 어구를 사용하여 판표시를 하도록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다.

⑥ 종합표제가 없는 자료의 경우 관련된 판표시가 한 개 또는 그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저작으로 구성되었을 때, 관련된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에 이어서 판표시를 기술하고 마침표로 구분한다.

3) 대등판표시

언어나 문자를 달리하는 두 종 이상의 판표

시가 있을 경우에는 본문의 언어나 문자와 일치하는 것을 채택하며, 이것의 적용이 어려울 경우는 최초의 표시를 기술한다. 즉, 대등판표시는 기술하지 않으며, 다만 임의 규정으로 대등판표시를 기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AACR2R 1.2B5).

4) 특정 판의 책임표시

기술대상자료의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판에 관련이 있지만 모든 판에는 관련이 없는 책임표시는 판표시가 있다면 해당 판표시 다음에 기술한다. 그리고 판에 대한 대등책임표시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AACR2R 1.2C).

5) 부차적 판표시

기술대상자료에 특정 판을 변경하여 다시 발행했다는 표시가 있는 경우, 판표시 및 그 판의 책임표시에 이어서 그러한 표시를 한다. 그리고 부차적 대등판표시는 앞서 언급한 대등판표시에 준한다(AACR2R 1.2D).

6) 부차적 판의 책임표시

부차적 판표시에 관련된 책임표시는 부차적 판표시 다음에 기술한다. 그리고 부차적 판의 대등책임표시가 있으면 앞서 언급한 대등책임표시에 준하여 임의규정으로 적용하고 있다(AACR2R 1.2E).

3. 4 국제표준서지기술법의 판사항

3. 4. 1 판사항의 규칙구조

ISBD는 일반공통용으로 제정된 ISBD(G)

의 기본구조에 따라 각 매체별로 규칙이 제정되었다. 여기서는 ISBD가운데 대표적인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ISBD(M)과 판사항에 있어 다른 규칙들과 많은 차이점이 있는 ISBD(ER)를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ISBD의 판영역에 대한 구조는 모두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며, 매체의 특성에 따라 일부 세부사항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즉, 2 판영역, 2.1 판표시, 2.2 대등판표시, 2.3 특정 판에 관련된 책임표시, 2.4 부차적 판표시, 2.5 부차적 판의 책임표시로 이루어져 있다.

3. 4. 2 판사항의 규칙내용

1) 판사항의 기술요소

ISBD에서는 판사항의 기술요소를 판표시, 대등판표시, 특정 판의 책임표시, 부차적 판표시, 부차적 판의 책임표시와 같이 5개 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대등판표시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ISBD(M) 2].

2) 판표시

(1) 판표시의 범위

판표시의 범위는 전자자료 등과 같은 일부 매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매체에서 다음과 같이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행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매체에서 판표시는 ① 명명되거나 번호가 부여된 판을 구성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식별되는 어떤 출판물의 모든 복본, 또는 ② 해당 출판물에 결과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표시가 나타나 있는지의 여부는 관계없이 동일한 표현형식으로 된 다른 복본들과 지적 또는 예술적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특정한 표현형식으로 된 출판물의

모든 복본과 관련된 용어나 어구, 문자군으로 나타내고 있다[ISBD(M) 2.1.1].

그런데 전자자료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본 원칙과 함께 ① 물리적 용기의 유형과 크기, ② 프린터와 관련된 파일형식, ③ 시스템관련 형식, ④ 캐릭터 코드나 블록킹, ⑤ 레코드 밀도, ⑥ 출력매체나 출력형식 등과 같은 차이점은 異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판의 개념을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ISBD(ER) 2.1.1].

(2) 판표시의 기술방법

판표시의 세부적인 기술방법은 아래와 같다 [ISBD(M) 2.1].

① 판표시는 기술대상자료에 있는 그대로 기술하며, 표준 약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다른 숫자 또는 완전하게 풀이된 기호는 아라비아숫자로 대체한다.

② 판표시에 부가된 설명어구는 해당판의 식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기재한다.

③ 표시가 판표시라는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판이나 버전 등의 용어가 있다면, 그것을 판표시로 간주하여 그대로 기술한다.

④ 기술대상자료에 판표시가 없지만 이전 판에 비해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각괄호 속에 적절한 어구를 사용하여 판표시를 할 수도 있다.

⑤ 다른 사항에 나타나는 어떤 요소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미 그와 같이 다루어진 판표시는 판사항에 반복하지 않는다.

⑥ 종합표제가 없는 자료의 경우 관련된 판표시가 한 개 또는 그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저작으로 구성되었을 때, 판표시는 판사항에

하지 않고 관례적인 구두법을 사용하여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에 기재한다.

3) 대등판표시

언어나 문자를 달리하는 두 종 이상의 판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본표제의 언어나 문자와 일치하는 것을 채택하며, 이것의 적용이 어려울 경우는 표제면에 활자크기가 두드러지거나 가장 먼저 나타나 있는 것을 기술한다. 즉, 대등판표시는 기술하지 않으며, 다만 임의 규정으로 대등판표시를 기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ISBD(M) 2.2].

4) 특정 판의 책임표시

해당 판에 관련되어 있거나 해당 판의 일부에 관련되어 있지만 그 저작의 모든 판과는 관련되어 있지 않은 책임표시가 표제면에 나타나 있는 경우, 해당 판표시 다음에 기술한다. 그와 같은 표시가 표제면에 나타나 있지 않을 경우, 각괄호로 묶어 판사항에 기재하거나 주기사항에 기재할 수도 있다. 그리고 특정 판에 대한 대등책임표시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ISBD(M) 2.3].

5) 부차적 판표시

부차적 판표시는 ① 해당출판물이 어떤 판내의 어느 한 판에 속하거나 처음 이름 붙여진 판과 동등한 판에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공식적인 표시를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② 해당 출판물이 그것이 속하는 상위판(large edition)의 다른 쇄와 내용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기술한다. 그리고 부차적 대등판표시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ISBD

(M) 2.4].

6) 부차적 판의 책임표시

부차적 판표시에 관련된 책임표시는 앞서 언급한 특정 판의 책임표시 규정에 따라 기술한다. 그리고 부차적 판의 대등책임표시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ISBD(M) 2.5].

3. 5 목록규칙들간에 판사항의 비교 분석

앞장에서 분석한 KCR4, NCR, AACR2R, ISBD의 판사항을 바탕으로 규칙들의 특성이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3. 5. 1 판사항의 기술요소

KCR4에서는 판사항의 기술요소를 판표시, 특정 판의 책임표시, 부차적 판표시, 부차적 판의 책임표시와 같이 4개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단행본뿐만 아니라 모든 매체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NCR도 KCR4와 같이 4개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AACR2R과 ISBD에서는 이러한 4개요소 외에 대등판표시를 임의요소로 추가하고 있다.

3. 5. 2 판표시의 범위

대부분의 매체에서 판표시의 범위를 기술총칙 그대로 적용하고 있지만, 특히 전자자료와 녹음자료에서 매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총칙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1) 기술총칙에서는 KCR4를 비롯한 모든 규칙에서 대체로 판표시의 범위를 내용의 변화가 있거나, 내용의 변화는 없더라도 크기나 활자를 달리하면 새로운 版으로 표시하며, 그렇

지 않은 경우는 새로이 발행하더라도 刷로 표시하고 있다. 즉, 다른 판과의 내용적 형태적 변이를 가리키는 어구나, 인쇄원판은 동일하지만 특정 판으로 표시된 것은 모두 판표시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겠다.

(2) 전자자료에서는 규칙마다 표현의 강도는 다소 다르지만 전자자료의 특정 판이나 전자자료를 읽거나 실행하는데 필요한 응용프로그램 또는 운영체제의 특정버전에 관한 사항을 그 범위로 하면서도 ① 철자수정과 같은 데이터의 사소한 변경, ② 내용배열의 변경, ③ 출력형식이나 출력매체의 변경, ④ 레코드 블록이나 밀도와 같은 물리적 특성의 변경 등은 새로운 판으로 다루지 않고, 주기사항에 기술함으로써 다른 매체에 비해 판의 개념을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전자자료의 출력형식과 관련된 'ASCII edition'이나 'PostScript edition', 출력매체와 관련하여 인터넷자료를 다시 'CD-ROM 버전'이나 '플로피 디스켓 버전'으로 복제한 경우, 레코드 밀도와 관련된 '압축파일버전'이나 '일반버전' 등은 異版으로 간주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매체의 규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도서관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경우,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

그런데 'IBM PC version'이나 'Macintosh version'은 어떻게 적용될까? 앞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ISBD(ER)과 NCR에는 시스템관련형식의 차이도 異版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는데 비해¹⁾, AACR2R과 KCR4에는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렇지만 전자자료의 판사

항에 대한 전반적인 취지를 살펴볼 때 시스템 관련 형식인 'IBM PC version'이나 'Macintosh version' 등도 ISBD(ER)이나 NCR과 같이 異版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3) 녹음자료의 경우, KCR4와 NCR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표시 범위가 대체로 유사한 반면, AACR2R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3. 5. 3 판표시의 기술방법

판표시의 기술에 있어 기본적인 방법은 동일하지만 세부규칙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1) KCR4에서는 복제본의 으뜸정보원에 영인판 또는 복제판임을 알 수 있는 어구가 있을 경우, 이를 판표시로 기술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AACR2R이나 ISBD(M)에서는 여기에 대한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KCR4에서는 增補, 新增, 影印 등 판을 지칭하는 어구가 표제에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 역할어가 판을 나타낼 때에도 판표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ISBD(M)에서는 이러한 경우, 판영역에는 판표시를 반복하여 기술하지 않는다.

(3) 왜치는 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않지만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되, 판표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어서 기재한다. 동양서에 표시되어 있는 판차가 실제로는 왜의 뜻을 지니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판표시로 기재한 다음 '실은'이라는 어구를 앞세워 각괄호 속

1) NCR의 경우, 시스템형식의 차이는 원래 판표시를 하고 있지 않지만, 別法으로 표시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 보기한다. 그렇지만 AACR2R이나 ISBD(M)에는 여기에 대한 세부규정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의 일부 출판물에 있어 판과 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지 않은데 비해, 영미출판물의 경우 판과 쇄를 엄격히 구분하여 표시함으로써 서지기술에서도 별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된다.

(4) 종합표제가 없는 합집의 개별표제에 대한 판표시가 각기 다를 경우, KCR4에서는 주 기사항에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AACR2R과 ISBD(M)에서는 각 개별표제와 책임표시다음에 판표시를 하고 있다. 이때 판표시는 판영역이 아니라 영역 1(표제 및 책임표시영역)에 해당하며, AACR2R에서는 마침표다음에, ISBD(M)에서는 쉼표다음에 기술한다.

(5) KCR4에서는 특수한 포맷이나 형태를 표현하는 판표시, 특정 언어나 지역에 의한 판표시, 그리고 인쇄원판은 동일하지만 특정 판으로 기재된 판표시는 모두 판표시로 기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ACR2R과 ISBD(M), NCR에는 여기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지만 대체로 이러한 사항은 판표시로 기술하고 있다.

(6) 전자자료의 경우, 대부분 기술총칙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다만 호환성을 지닌 상위버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 KCR4에서는 버전다음에 '이상'이라는 어구를 부기하고 있지만(8.2.1.2), AACR2R과 ISBD(M), NCR에서는 여기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다.

3. 5. 4 대등판표시

KCR4에서는 언어나 문자를 달리해서 두 종 이상의 판표시가 있을 경우(대등판표시),

본문의 언어나 문자와 일치되는 것을 채택하여 기재하고 나머지의 표시는 생략하고 있지만, AACR2R이나 ISBD(M)에서는 임의규정으로 대등판표시를 모두 기술하고 있다. NCR에는 대등판표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3. 5. 5 특정 판의 책임표시

AACR2R과 ISBD(M)에서는 판에 대한 대등책임표시를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는 반면, KCR4에서는 기재를 생략하며, NCR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3. 5. 6 부차적 판표시와 책임표시

AACR2R과 ISBD(M)에서는 부차적 대등판표시와 책임표시를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는 반면, KCR4와 NCR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4. 결 론

서지기술에 있어 판사항은 저작의 상이한 판을 식별하여 검색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지만 규칙들간에 적용범위나 방법이 상이하 며, 같은 규칙이라 하더라도 개정판에 따라 미묘한 차이점이 있어 실제로 목록을 작성해 보면 애매한 경우가 많다. 이 연구에서는 서지기술에 있어 판의 개념과 표시형태를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KCR4, NCR, AACR2R, ISBD(M), ISBD(ER) 등의 목록규칙간에 판사항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판사항의 주요사항과 특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서지기술에 있어 판과 쇄의 개념을 구

별하면서 판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즉, 대체로 내용의 변화가 있거나 내용의 변화는 없더라도 크기나 활자를 달리하면 새로운 版으로 표시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새로이 발행하더라도 刷로 표시한다.

(2) KCR4와 NCR에서는 판사항의 기술요소를 판표시, 특정 판의 책임표시, 부차적 판표시, 그리고 부차적 판의 책임표시와 같이 4개 요소로 규정하고 있지만, AACR2R과 ISBD(M)에서는 임의규정으로 대등 판표시를 기술하고 있다.

(3) 판표시의 범위에 있어 일반도서를 비롯한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내용의 변화는 없더라도 외형적인 서지적 변화가 있으면 판표시를 하는 반면, 전자자료에 있어서는 주로 서지적인 변화에 관계없이 내용의 변화가 있느냐에

따라 판표시를 하는 경향이 있다. 즉, 최근의 디지털 전자환경으로 인해 다른 매체에 비해 전자자료의 경우 판표시를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4) 판에 대한 대등책임표시, 부차적 대등 판표시 및 책임표시는 AACR2R과 ISBD(M)에서는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는 반면, KCR4와 NCR에서는 기재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최근의 전자출판과 디지털환경을 감안하면 판표시의 범위는 전자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에서도 보다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즉, 특별한 내용의 변화가 없는 경우 가능하면 판표시로 기술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주기사항에 기술함으로써 새로운 레코드의 생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정현. 2002. 『전자자료조직론』 대구: 태일사.
- _____. 2003a. A ACR2R 2002 개정판의 개정 내용과 특성분석. 『情報管理學會誌』 20(1): 251-270.
- _____. 2003b. ISBD(CR)의 특성과 서지기술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3): 147-167.
- 김태수. 1999. 『목록의 이해』.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李明奎. 1988. 『現代目錄規則에 나타난 版次事項』.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한국도서관협회. 1996.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韓國圖書館協會 目錄委員會. 2003. 『韓國目錄規則』. 第4版.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 境田稔信. 1995. 辭書に見る版と刷の表示. 『出版研究』, 25: 157-179.
- 飯島朋子. 1998. 目錄規則の比較検討: 版エリアを中心に. 『大圖研論文集』, 20: 1-16.
- 北克一, 志保田務. 1999. 「日本目錄規則 1987年版改訂版」における版に関する事項の規則構造. 『整理技術研究』, 41: 29-38.
- 日本圖書館協會目錄委員會. 2001. 『日本目

- 録規則, 1987年版 改訂版 第9章 電子資料』.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 日本圖書館協會目錄委員會. 1994. 『日本目錄規則』. 1987年版 改訂版.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 _____. 2001. 『日本目錄規則』. 1987年版 改訂2版.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 志保田務. 1983. 現代目錄法における版の扱いに関する研究. 『知識の組織化と圖書館』. 東京: もり・きよし先生喜壽紀念會. 323-342.
- 志保田務, 岩下康夫, 遠山潤. 2000. 『NCRプログラム式演習と基本概念の分析: 日本目錄規則 1987年版改訂版への手引き』. 東京: 學芸圖書.
- ALA. 2002.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2nd ed., 2002 Revision. Chicago: ALA.
- Cutter, Charles Armami. 1904. *Rules for Dictionary Catalog*. 4th ed.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 Hsieh-Yee, Ingrid. 2000. *Organizing Audiovisual and Electronic Resources for Access: a Cataloging Guide*. Engliwood, Col.: Libraries Unlimited.
- IFLA. 1997. *ISBD(ER);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for Electronic Resources*. München: Saur.
- IFLA. 2002a. *ISBD(M);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for Monographic Publications*. 2002 Revision. München: Saur. [오동근 등역. 2003. 『국제표준서지기술법: 단행본용 2002년판』. 대구: 태일사].
- IFLA. 2002b. *ISBD(CR);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for Serials and Other Continuing Resources*. München: Saur.
- Library of Congress. 2003. *MARC 21 Format for Bibliographic Data*. 2003 Concise Edition, [cited 2004, 11. 5].
<<http://www.loc.gov/marc/bibliographic/ecbdhome.html>>.
- Maxwell, Margaret F. 1989. *Handbook for AACR2 1988 Revision*. Chicago: ALA.
- Prytherch, Raymond John. 1995. *Harrod's Librarians' Glossary of Terms Used in Librarianship, Documentation and the Book Crafts, and Reference Book*. 8th ed. Aldershot, Hants, England: Gower.